

치아우식증의 예방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

(Korean's Cognitive Knowledge on the Prevention of Dental Caries

박 기 철

인디애나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 및 공중치과학 교수

62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64년 석사학위 취득
67년 박사학위 취득
69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치과대학, 공중보건 전문의
67-69년 서울대 치대 전임강사
70-현재 미국인디애나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구강보건 연구소 운영위원, 치과대학 연구
계획서 평가위원 등)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이 원고를 쓴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한국의 서울까지 14시간 하늘에 떠 있는 시간에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독자들에게 흥미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치과계를 생각하면서 지난 월요일 내사무실로 배달된 미국 공중보건협회지에서 서울 치과대학의 백대일과 문혁수, 주식회사 "럭키"연구소의 정광래와 서성수 그리고 미국 치과의학 연구소의 "헬렌 기후트"와 "엘리스 호로워츠"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한국인들의 구강보건 지식에 대한 보고서를 생각한다. 한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연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나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내가 한국에서 30여년전에 조사하여 국립보건원 연구지에 보고한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고문헌에서 30여년의 조사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한다. 1800년대 평양의 사리원에서 시작한 문흥숙의 구강보건 계몽운동을 비롯하여 한국인들의 구강보건사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으며 1967년에 창립한 한국구강보건협회를 통한 범 국민운동을 통한 구강보건의 지식보급운동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한다. 한국인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한국인 전체를 대표할만한 기본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보고 내용을 크게 평가하며 한국인들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중보건치과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정평있는 미국공중치과협회지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학자들과 공동 협조로 발표하였다는 사실에 그 의미를 부여한다.

기본적인 역학적인 연구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을 배제할

“ 불소의 사용효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 혹은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치과의를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한국인이 겨우 9%에 지나지 않는다 ”

수 있는 실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원리를 사회과학적인 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내용을 한국의 치과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치아우식증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감소일로에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에 12세의 아동층에서 400%가 증가하였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하고 있어 관심있는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의 치과 의사들을 비롯하여 구강보건 증사원들은 잘 분석 검토해야만 할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구강보건협회지를 받고 “한국인들의 치아우식증 예방과 관련된 지식과 실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연구논문을 주의해서 읽고 저자 중의 하나인 “앨리스 호로워츠”박사에게 전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의견을 타진한 바 있다. “정말로 한국의 치과계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호로워츠박사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연구결과의 분석에서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불소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국인이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불소의 사용효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대부

분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 혹은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치과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한국인이 겨우 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청주와 진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료수의 불소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국인들의 2%정도가 치과 의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하여 치과 의사들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칫솔질을 하고 있으며 칫솔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불소를 포함한 치약의 효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치과 의사들을 비롯한 모든 구강보건진료 요원들이 알아야만 한다. 즉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치약은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치과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중대사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치아우식증이 격감된 가장 큰 이유는 사용상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질적으로 좋은 불소 치약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치과 의사들은 총력을 발휘하여 치약 제조업자들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소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질 좋은 치약을 생산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불소치약의 중요성을 주지시켜야만 한다.